

Art

아트인컬처
December 2014

Special Feature /
한국의 회화 13인×13인
Matching & Mapping

Abroad/
요코하마트리엔날레
타이베이비엔날레

Market/
런던 Frieze, 파리 Fiac

Theme/
독립 출판, 세계 지형도
생산부터 유통까지

Essay/
단색화 '촉각적 보기'

장재민 ← 노충현

오늘의 풍경화를 그리다

바깥 풍경을 그린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2004년 한강시민공원을 그리게 되면서 나는 관념적이었던 내면의 풍경과 무거운 주제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된 시기도 이즈음이었다. 산책을 하면서 한강시민공원의 이곳저곳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사진과 풍경은 이전 회화가 지닌 과잉의 감성으로부터 거리를 두게 했고, 인물보다 풍경 그 자체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를 열어 주었다. 그것이 좋았다.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사물과 풍경을 바라보는 지점, 그곳에서 내가 그려 낼 수 있는 회화를 찾은 것 같았다. 처음엔 풍경을 오랫동안 그릴 것이라고 생각하진 못했지만, 작업을 하면 할수록 서울이 지닌 풍경과 질감에 주목하게 되었다. 풍경의 질감은 기후, 계절 그리고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이곳의 스산한 정치 사회적 풍경으로부터 얻기도 했다. 이때 주요한 문제는 어떻게 경험을 시각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경험을 시각화시키기 위해서는 회화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야만 했다. 그 결과 대체적으로 밋밋한 풍경으로 귀결되었고, 장소가 지닌 사실성에 주목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적 기록으로서의 그다지 의미가 없는 그림이 되었다. 그 그림들을 <살풍경(殺風景)>이라 불렀다.

가끔 풍경을 왜 그리는지 질문을 받게 된다. 사실 그림을 그리다 보면 본질적인 질문들은 미루거나 하지 않게 된다. 풍경화는 미술의 한 장르이기 전에 풍경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의미와 타당성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삶으로부터 정당성을 얻는다 하더라도 모든 풍경화가 그러하다고 할 수는 없다. 풍경화가 단순한 장식 그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의 삶이 어떠한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살펴 반영해야 한다. 2000년대 초에 주목받은, 도시를 그린 회화들은 뉴타운 건설과 같은 도시 재개발로 인하여 도시의 역사와 기억이 지워져 가는 상황을 주목했다. 민중미술 속의 도식화된 도시와는 다른 방식으로, 작가들은 각자의 회화적 방법론을 통해 도시 그 자체의 모습에 주목하면서 도시를 구성한 사회적 시스템에 관해 질문했다. 이처럼 풍경을 그린다는 것은 풍경 그 자체를 다루면서도 일상 속에 침윤되어 있는 삶의 불안정함과 위기적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재민의 그림은 요즘 풍경화에서 잘 볼 수 없는 '뜻밖의 장소'를 선택하고 풍경화의 대상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작가는 첫 번째 개인전 <시간을 잃어버린 풍경>전을 준비하면서 이전의 연출된 풍경으로부터 벗어나 실제의 풍경을 그리기 위해 백령도, 노근리, 국도 여행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진을 촬영했다고 한다. 그의 회색 그림들은 사건이 사라지거나 혹은 사건이 감추어진 시간의 풍경을 만나면서 시작된 것이다. 작가가 다루는 풍경의 내용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그의 그림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내용을 다루는 태도와 회화적 표현 때문이다. 그의 화면은 풍경의 사실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활달하고 표현적인 붓질, 점도가 높은 물성, 구상적이면서도 추상적인 면모를 지닌다. 흥미로운 점은 작가가 풍경을 그림의 '소재'가 아니라 그림을 위한 '동기'로 다루고자 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의 회화적 성격을 만든 주요한 요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풍경을 '동기'로 다루게 되면서 그의 회색 풍경화들은 실제의 풍경을 가리키면서도 가끔은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된다. 회화가 풍경을 지나쳐 버리게 되면 어디에 닿는 것인가? 풍경을 그리는 것이 풍경을 '정의'해 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장재민의 회화도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리라 기대해 본다. / 노충현



노충현 <편의점> 캔버스에 유채
112×145.5cm 2013